

8월29일

[USD/KRW]

USD/KRW 예상 : 1334~1341원
NDF 증가 : 1334.50 (Swap point : -2.85, 1337.35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와 위험선호 부진에 상승할 전망이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제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달러는 미 GDP, PCE 확인 후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보임. 한편, 시장 예상을 상회한 엔비디아 실적에도 기술주 약세 분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증시 외자 유출 나타날 경우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또한,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인하 시기를 확신하기 위해 지표 기다리고 있다는 신중한 스탠스를 보인 점도 달러를 지지. 다만, 월말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 시 상승 압력 제한될 것으로 보임. 이에 환율은 1330원대 후반 등락 예상
- (전일 동향) 28일 달러/원 환율은 파운드화 강세와 미 고용 부진 우려로 인한 약달러에 2.5원 하락한 1328.5원으로 출발 후 달러 반등과 수급상 매수 우위에 8.0원 오른 1339.0원에 종가 기록(15:30).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관망세 나타나면서 6.0원 상승한 1337.0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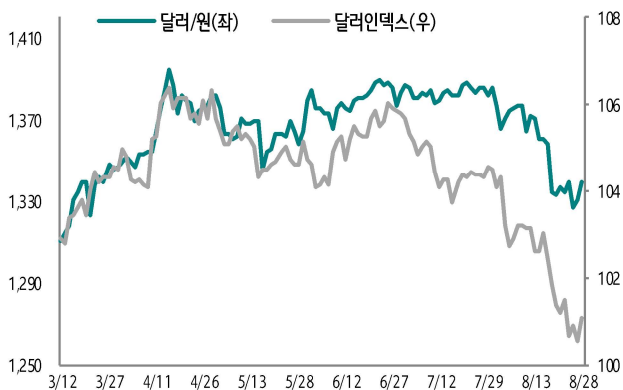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 기술주 약세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가능성
- 신중한 기조를 유지한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과 달러 강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 월말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

KRW, USD Index



자료: 인포맥스

[Globa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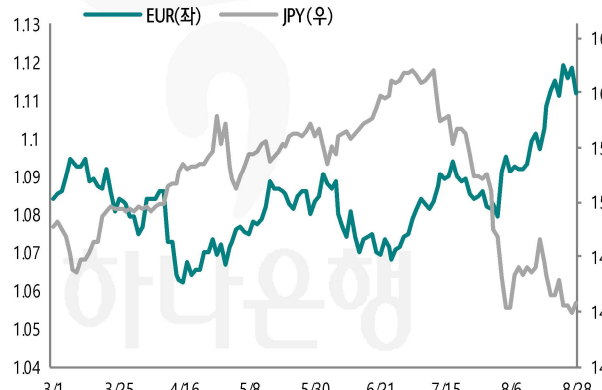
EUR/USD 예상 : 1.1060~1.1150
USD/JPY 예상 : 144.26~145.26

- (USD Index) 글로벌 금융시장은 월말 달러 매수 수요가 유입되는 가운데 미 성장,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달러는 강세를 보임. 달러인덱스는 0.50 상승한 101.07을 기록
- (EUR) 유로화는 독일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CB의 9월 추가 금리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약세. 유로/달러 환율은 0.0063달러 하락한 1.1120달러로 마감
- (JPY) 엔화는 히미노 료조 BOJ 부총재가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금융시장 불안정을 고려해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 부각되면서 약세. 달러/엔 환율은 0.71엔 상승한 144.66엔으로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101.07 (+0.50)	
EUR/USD	1.1120 (-0.0063)	1488.88 (+0.42)
USD/JPY	144.66 (+0.71)	925.86 (+1.24)
USD/CNH	7.1318 (+0.0076)	187.73 (+0.86)

EUR, JPY



자료: 인포맥스

[Macro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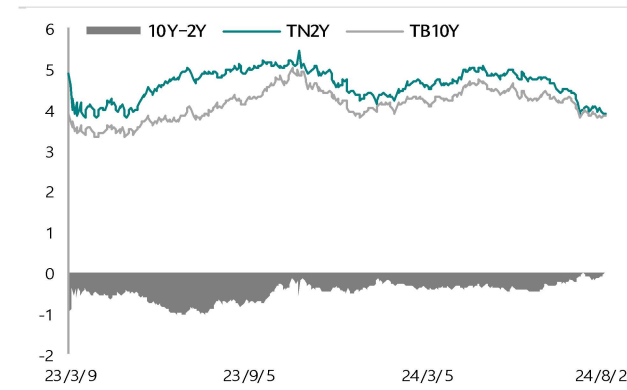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3.80bp (전일대비 +4.10)

- 글로벌 경제는 주요 이벤트 부재 속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주시하는 모습. 미 MBA 30년 모기지론 금리는 전주대비 6bp 하락한 6.44%로 4주 연속 하락. 엔비디아 2분기 매출은 300.4억달러로 예상치 287억달러를 상회했으며, 3분기 매출은 약 3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 예상치 319억달러를 상회. 미 재무부의 5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견고한 수요가 확인된 가운데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은 2.80bp 하락한 3.875%, 10년물 수익률은 1.30bp 상승한 3.837%를 기록. 뉴욕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 속 기술주 약세가 나타나면서 다우지수 -0.39%, S&P -0.60%, 나스닥 -1.12% 마감.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덜 감소했다는 소식에 하락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시간	내용	예상	이전
21:00	독일 8월 CPI상승률(YoY)	2.1%	2.3%
21:30	미국 2분기 실질GDP성장률(QoQ)	2.8%	1.4%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34K	232K

US Treasury Market



자료: 인포맥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달러 강세와 위험선호 부진, 환율 상승 전망